

남북연락사무소 개성공단에 내일 개소

교섭·연락...당국간 회담·협의...민간교류 지원 등 수행
천해성 통일차관 南 소장 겸직...김창수 사무처장 상주
南 조명균·北 리선권 개소식 참석...구성·운영 합의서 서명

판문점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남측 소장장으로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1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개소식에는 우리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부문별 회담대표들이 참석하며 규모는 각각 50~60명 정도다.

개소식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된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했던 4층 건물에 들어선다. 판문점선언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뒤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로 합의가 이뤄졌다'.

개소식이 끝나면 공동연락사무소는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통일부는 ▲교섭·연락 ▲당국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한다. 소장은 남북 사이에 주1회 열리는 정



오는 14일 개소식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는 소장 대신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 상주한다. 사무처는 30명 규모로, 사무처장은 남측 부소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해왔으며 근무자 명단은 13일 알려줄 예정이다.

소장으로는 올해 들어 고위급회담에 대 표단 일원으로 나왔던 전중수 부위원장이 나 박용일 부위원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소장은 개소식을 마친 뒤 상견례를

하고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로 정착해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월 중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안을 준비해왔으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로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개소 시점을 9월로 늦췄다.

/연합뉴스

민주, 5·18 진상조사위원 이견

당내 TF, 상임위원으로 최병모 변호사 추천
고위층, 송전태 전 5·18 재단 상임이사 염두

민주당의 5·18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진상조사위원 추천 TF는 상임이사 후보로 최병모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반면, 당내 고위층에서는 송전태 전 5·18 재단 상임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당내 TF에서는 특검을 지낸바 있는 최 변호사가 5·18 진상조사위 상임이사를 맡는 것이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이사는 5·18 재단에서 중책을 맡은 바 있는 데다 올해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는 등 전문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송 전 이사는 이해한 대표의 총리 재직 시절 정무 비서관을 지내

는가 하면 이번 대표 경선 캠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상임이사 추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논총을 보내고 있다. 문 의장이 안중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편이 꼬였다는 것이다. 문 의장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정했어야 됐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5·18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과 관련, 13일 까지 후보를 정하고 14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과연 광주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목포 북항 노을공원 망향탑 준공

이북도민회 전남도 연합회

이북도민회 전남도 연합회(회장 윤성철)는 12일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망향탑 준공식을 갖고 망향제를 지냈다.

〈사건〉
전남도 이북도민 망향탑은 전남에 거주하는 10만여 실향민들에게 망향의 한과 이산의 아픔을 달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목포시가 공원 내 부지를 제공해 건립됐다.

망향탑은 이북도민의 타향살이에 대한 애환과 평화통일 염원을 한 방울의 눈물로 형상화했다.

“가련다, 나는 가야한다.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북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문구를 새긴 넓이 99㎡, 높이 10m 크기로 제작됐다.

윤성철 이북도민 전라남도연합회장은 “이번 망향탑 준공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의 슬픔과 애환을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망향제를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북도민들을 위해 영호남 친선교류 지원, 망향제 개최, 다양한 사회 정작 및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세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적응훈련, 재능기발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양파·마늘 많이 심지 마세요”

전남도, 과잉생산 우려 적정 재배 지도 나서

전남도가 파종기를 앞두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마늘과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재배 지도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산 전국 마늘·양파 재배의향 면적 조사 결과 마늘은 평년보다 10~12%, 양파는 7~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마늘·양파 주산지인 전남·제주 재배면적은 줄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영남·강원 등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지역 생산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공

등을 통해 소비량이 늘지 않으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전남도는 올해에도 양파재배가 49억원을 들여 조생종·중만생종 양파 면적 237ha를 조절하고 농협을 통해 비계약 물량 2만t을 수매하는 등 수급안정 정책을 펼쳤다.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9230ha, 마늘 6346ha에 달한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 농업과장은 “의향면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를 유도하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공급이 조금만 넘쳐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국내 최대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

민자 1500억 투입 100MW급 2020년 8월 준공

전남도는 12일 영암 금정면 소재 영암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100MW)인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유항열 한국남동발전사장, 서기섭 대명GEC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대명GEC는 현재 가동 중인 40MW(2MW×20기) 영암풍력발전소 350만4705㎡ 부지에 민간자본 15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한다. 100MW는 연간 4인가족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명GEC는 지난해 7월 산업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립해 이번달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다.

또한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업종 사업체와 17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암 금정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1MW)를 설치해 무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연간 2억 원, 20년 동안 40억 원의 수익이 생길 전망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전남은 천혜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시66주년

임야

※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

바로잡니다. 010-6834-7400

투자자모

공동투자가능/월15%이상 수익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오천권매 대부.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익을 보.

임대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가소유 공장으로 만들어 드림!

첫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13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9월 13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접수지도교수 : 송웅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